

日本漢字音과의 비교를 통한 /·/의 音價 考察* **

이 준 환***

이 글은 國語音韻史의 宿題 중 하나인 /·/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 마련을 위하여, /·/를 모음으로 지닌 韓國漢字音과 日本漢字音과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古代國語·古代國語를 반영한 일본 자료·漢語와의 대응 양상·日本の 近代國語 전사 자료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音價를 고찰한 것이다. 日本漢字音과의 비교는 吳音を 중심으로 하되 漢音, 宋音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의 대응 양상의 변화에 주목했다. 그 결과 /·/는 ㄱ列과 ㄷ列에 대응하는 양상이 가장 많은데, 이런 양상은 鄉歌의 用字 및 漢語 轉寫 자료(《鷄林類事》, 《朝鮮館譯語》)와의 비교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日本書紀》의 ‘己富利’, ‘耽羅, 耽羅, 耽羅’ 등 古代國語 반영 자료를 본 결과 /·/는 古代日本語의 ㄷ列 乙類에 대응하는 특징을 보여 中舌母音의 특징을 드러냈다. 《全一道人》, 《物名》, 《交隣須知》와의 대응 양상에서도 이런 특징이 확인된다. 이상의 논의로써 /·/는 古代國語에서 近代國語에 이르는 동안 中舌母音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ɾ, ɿ, ɿ:/ɿ, ɿ, ɿ/의 체계적 대립을 생각해 볼 때 그 음가는 /ə/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母音推移에 관한 어떤 긍정적인 암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韓國漢字音, 日本漢字音, 鄉歌, 古代日本語, 漢語, 中舌母音 /ə/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56-A00018).

** 이 글은 東京大學 文學部 國語研究室의 히즈메슈지(肥爪周二) 선생님의 가르침에 힘입은 바 크다. 필자에게 東京大學에서 연구할 기회와 日本漢字音 및 日本語音韻史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히즈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1. 도입

/·/는 母音體系, 母音體系의 變化, 母音調和, 訓民正音의 이해 등을 위한 그간의 연구에서 집중적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그 결과 이 음소의 실체에 관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음소가 母音體系上 위치가 어떠한지 즉, 後舌母音인지 中舌母音인지, 中母音인지 低母音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異見이 있어 音價가 확정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訓民正音》의 기술처럼 [舌縮]의 /·/가 /ㄴ/, /ㄷ/와 陽性母音으로서 한 무리가 되어 [舌小縮]의 陰性母音 /ㅡ/, /ㅌ/, /ㄹ/와 母音調和에서 대립하는 체계와 母音體系를 동일시 할 것인지(김완진 1963, 1978, 허웅 1965, 박창원 1986, 김주원 1992, 김주필 2003 등), 母音體系는 前後舌을 대립의 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舌縮을 대립의 軸으로 하는 母音調和와 合致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이기문 1972, 정연찬 1999 등)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또한 이 음소가 16세기에 非語頭音節에서 /ㅡ/와 대립을 상실하고, 18세기에 語頭音節도 非音韻化하여 /ㄴ/로 합류했다는 것과 母音推移의 결과 /·/가 後舌低母音으로 몰려 소실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¹⁾

이런 문제는 古代國語에서 中世國語에 이르는 동안 /·/가 어떤 音價를 지닌 소리인지가 판명된다면 논란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日本漢字音を 자료로 활용하여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를 모음으로 지니는 韓國漢字音이 日本漢字音과 대응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이 음소의 음성적

1) /·/의 2단계에 걸친 소실이 비어두에서는 /·/ > /ㅡ/, 어두에서는 /·/ > /ㄴ/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냐와 그 변화가 완료된 시기도 각각 16세기와 18세기로 단정할 수 있는냐에 관해서는 여러 異見이 있다. 이는 /·/의 변화가 선행 자음의 종류, 문헌에 따라 시차와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한영균(2002), 김주필(2004가, 2004나, 2007) 등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6세기에 비어두에서 /·/ > /ㅡ/를 겪은 비율이 불과 9%에 지나지 않으며(한영균 2002), 18세기 문헌에서도 /·/ > /ㅡ/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언어적 사실이 확인된다(김주필 2004가, 2004나).

특성을 밝히고 母音圖 내에서의 위치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日本漢字音과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日本漢字音에 고대국어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고, 유입 시기에 따른 重層性이 잘 보존되어 있어 /·/가 반영하고 있는 層位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²⁾ 또한 漢語와만 비교해서는 /·/가 漢語의 어느 시대 음에 대응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³⁾

논의 자료로 韓國漢字音은 中世漢字音 자료를 활용하고, 日本漢字音은 吳音を 주로 이용하고 漢音과 宋音도 이용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는 고대국어 단계에서는 실제로 존재했던 음소였는지, 실제로 존재했다면 어떤 성격의 음소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中世漢字音에서 /·/를 지닌 한자음의 層位를 생각하여 보고 이 層位를 중심으로 하여 日本漢字音과의 대응 양상의 변화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가 日本漢字音의 어떤 모음에 대응하는 음소인지를 알아보고, 이 결과를 /·/와 漢語와의 대응 양상과 비교하여 공통점을 추출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를 지녔던 것으로 보이는 古代國語 형태를 일본 자료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이들도 연구 자료로 이용하기로 한다. 또한 근대국어시기의 자료를 반영한 일본 전사 자료와의 대응 양상도 살펴서 고대국어에서 근대국어에 이르는 /·/의 대응 양상에 변화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아 母音體系의 문제, 母音推移의 문제들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와 日本漢字音과의 對應 樣相

2.1. 母音으로 /·/를 지니는 漢字音 目錄

-
- 2) 古層은 吳音, 主層은 漢音, 新層은 宋音과의 대응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止攝에서 「賜々, 紫々, 此々」 등의 齒頭音과 「土仕事師々, 差々」 등의 齒上音에서 모음이 /·/로 대응하는 것들을 古音의 반영으로 볼 것이나 近代漢語의 반영으로 볼 것이냐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이다.

中世漢字音에서 모음으로 /·/를 지니는 한자음을 中古音의 攝과 韻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江攝

江韻(2開) 「學鶴홀」

2) 止攝

支韻(3開甲/乙) 「賜徙斯泗祠詞駟스」, 「刺咨泚疵紫莉貨皆訾雌髭驚漬스」, 「兒令~
으」, 「此廁츠」/ 「蹤徒스」

脂韻(3開甲/乙) 「私四死肆螭스」, 「姉姿恣諮載資資姿自스」, 「次츠」/ 「師獅스」

之韻(3開甲/乙) 「思似司嗣姒寺祀筭絲辭食飼史伺耜스」, 「子字孖慈茲茲鋸孽籽肅스」/
「士事仕使俟스」

3) 蟹攝

泰韻(1開) 「帶디」, 「昧미」

哈韻(1開) 「開지」, 「乃니」, 「岱待戴臺貸貸黛代載擡디」, 「來來리」, 「胚미」, 「台態
티」, 「哀愛이」, 「再宰材裁災災裁財載哉在才지」, 「采彩採綵菜菴지」, 「怠殆胎
迨티」, 「亥咳頰偌孩海亥該醴히」

灰韻(1合) 「內니」, 「對碓디」, 「妹媒昧梅每煤莓母미」, 「坯培俳杯焙背裴配醅陪미」

佳韻(2開) 「埋買靈미」, 「俳비」, 「隘이」, 「齋지」, 「靡懈楷薤蟹解邂骸히」

皆韻(2開) 「皆楷지」, 「拜排비」, 「駭이」, 「差치」, 「諧駭히」

齊韻(4開) 「奚히」

4) 臻攝

痕韻(1開) 「懇懇곤」, 「吞툰」, 「狠恨흔」

魂韻(1合) 「勃脖搏볼」

5) 山攝

山韻(2開) 「限흔」

6) 梗攝

庚韻(2開) 「更坑稭羹징」, 「客깅」, 「冷령」, 「狎陌뎡」, 「盲孟氓猛盟뎡」, 「白伯佰帛
栢白百魄뵵」, 「牲甥省省笙銑銑싱」, 「索식」, 「櫻鶯罵鸚鶯」, 「輓額익」, 「箏징
」, 「烹烹」, 「窄冊칙」, 「撐팅」, 「擇澤宅택」, 「柎倅杏行형」, 「覈혁」

耕韻(2開) 「莖鏗징」, 「萌뎡」, 「麥脈뵵」, 「厄巨掖익」, 「崢爭諍징」, 「責柵策蹟칙」,
「幸悻형」, 「核혁」

清韻(3開) 「腋液익」

靑韻(4開) 「鷓鴣」

7) 曾攝

登韻(1開) 「恒⁸⁾」, 「刻⁹⁾」, 「憐⁹⁾」, 「効⁹⁾」, 「塞⁹⁾」

蒸韻(3開) 「色⁹⁾」

8) 咸攝

覃韻(1開) 「箴⁹⁾」, 「諷⁹⁾」

9) 深攝

侵韻(3開甲/乙) 「穆⁹⁾」/ 「參⁹⁾」, 「森⁹⁾」, 「參⁹⁾」, 「甚⁹⁾」, 「齒⁹⁾」, 「岑⁹⁾」, 「潛⁹⁾」, 「譜⁹⁾」⁵⁾

이상에서 보듯이 核母音이 /·/로 대응하는 漢字音은 모두 9개 攝 21개 韻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중 合口韻에서는 灰韻과 魂韻에서만 나타날 뿐 나머지는 모두 開口韻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介音의 성격에 따라서 甲·乙類의 구별이 있는 3등운에서는 /·/로 대응하는 예들은 대개가 甲類이며 乙類에 해당하는 것들은 드물다. 이를 통해 漢字音에서는 /·/가 圓脣母音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合口韻인 灰韻에서도 「內⁹⁾」, 「對⁹⁾」, 「妹⁹⁾」, 「媒⁹⁾」, 「梅⁹⁾」, 「每⁹⁾」, 「煤⁹⁾」, 「莓⁹⁾」, 「壞⁹⁾」, 「培⁹⁾」, 「杯⁹⁾」, 「背⁹⁾」, 「裴⁹⁾」, 「配⁹⁾」, 「陪⁹⁾」와 같이 /·/로 반영된 예들이 있다. 이 중 「妹⁹⁾」, 「壞⁹⁾」와 같이 脣音字에서 /·/로 대응하는 것은 [脣音性]+/·/→/ㄴ/임을 생각하여 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를 圓脣母音으로 보기는 어렵고, 「內⁹⁾」는 漢語에서도 中古音 이후에 合口性을 상실한 것이었으므로 새로운 層位의 한자음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圓脣母音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對⁹⁾」, 이들 두 예만이 合口韻인데도 /·/가 대응하는 예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⁶⁾ 이마저도 舌頭音 성모에서 合口性의 실현이 제약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되’라는 음절 형태가 한국한자음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合口性을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는 開口韻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아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⁷⁾

4) 이는 《번역소학》, 《소학언해》, 《번역박통사》에 나오는 예들이다.

5) 이들은 「甚⁹⁾」을 제외하고는 모두 齒上音에 해당하는 글자들이다.

6) 이 예들은 現代漢語에서도 核母音이 合口性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2.2. 日本漢字音과의 대응 양상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日本漢字音과의 대응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대응 양상은 일본어의 列別로 배열하고 吳音과 漢音を 병렬하되 吳音의 양상을 먼저 제시하고 漢音의 양상을 뒤에 제시하도록 한다. 이 중 吳音은 韓國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고(沼本克明 1986), 고대 韓國漢字音의 영향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어 고대국어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의 음가를 구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漢音은 그 音形을 보이는 예들의 개수가 吳音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韓國漢字音의 主層이 唐의 長安音에 기초했다고 보면(河野六郎 1968) 양국 한자음의 대응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宋音은 韓國漢字音 가운데 近代漢語를 반영한 新層의 특색을 밝히는 데에 요긴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첫째, ア列로 대응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江韻의 「學カク/カク」⁸⁾, 泰韻의 「帶タイ」, 哈韻의 「開カイ, 乃ナイ/다이, 代擡待다이/타이, 貸態타이, 袋타이(漢), 來萊라이, 胚하이(漢), 哀愛아이, 在才자이/사이, 采さい, 孩該가이/카이, 海카이」, 再災宰裁菜採載彩さい, 裁さい(漢), 財자이/사이, 怠殆다이/타이, 胎타이, 亥咳가이/카이」, 灰韻의 「內다이/나이, 對타이, 妹마이/바이, 昧마이, 媒梅煤바이(漢), 培바이/하이, 杯背配輩하이, 徘裴하이(漢), 佳韻의 「買埋마이/바이, 俳하이(漢), 隘아이(漢), 齋さい, 齏懈解카이(漢), 楷카이, 蟹邂카이(漢), 骸가이/카이」, 皆韻의 「皆카이, 排排하이, 駭가이(漢), 差さい, 諧카이(漢), 駭가이/카이」, 庚韻2等的 「更坑キャウ/카우, 客キャク/카크, 𧇗陌ミヤク/바크, 盲マウ/

7) 이렇게 분석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본고에서 국어의 /·/에 부분적으로 圓脣性이 있을 수 있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舌小縮의 /ㅡ/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를 圓脣性을 가진 것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계림유사》를 대상으로 한 박창원(2000)의 연구에서도 고려어의 원순모음은 /ㄴ, ㄷ / 두 가지이며, /·/는 비원순모음임이 지적되어 있다.

8) 사선 앞은 吳音, 사선 뒤는 漢音, 사선이 없는 것은 吳音과 漢音이 같은 경우이다. 이 이외에 다른 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음을 괄호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バウ, 猛ミャウ/マウ, 白佰百ヒャク/ハク, 伯帛ハク(漢), 索シャク/サク, 櫻鸚ヤウ/アウ, 鶯罵アウ(漢), 額ガク, 冊サク, 擇ヂャク/タク, 澤タク(漢), 宅タク, 杏行ギャウ/カウ, 耕韻의 「莖カウ(漢), 萌ミャウ/マウ, 麥バク(漢), 脈ミャク/バク, 厄ヤク, 爭シャウ/サウ, 柵サク(漢), 策シャク/サク, 幸カウ, 核カク(漢), 痕韻의 「狠グワン(漢), 山韻의 「限カン(漢), 覃韻의 「糝サム(漢), 鹽蚕サム(漢)」 등이 있다.

이처럼 ア列에 대응하는 것들이 수적으로 가장 많으며 吳音과 漢音이 같은 대응을 보이는 韻에는 江韻, 泰韻, 哈韻, 灰韻, 佳韻, 皆韻, 庚韻2等, 耕韻이 있고, 漢音에서만 그 양상이 나타나는 韻에는 痕韻, 山韻, 覃韻이 있다. 吳音 단독으로 ア列에 대응하는 韻은 登韻의 「恒ガウ」 이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⁹⁾

둘째, イ列로 대응하는 것은 支韻의 「賜刺泗咨祠斯紫雌此廁シ, 詞ジ/シ, 兒ニ/ジ, 脂韻의 「私四死姿師恣資次姉獅肆諮シ, 自ジ/シ, 之韻의 「仕嗣字寺似事茲慈辭士ジ/シ, 司子史使祀思筭シ, 蒸韻의 「色齋穡シキ(吳), 侵韻의 「森箴シム, 岑짐/シム, 澁澀シフ(吳)」 등이 있다. 止攝, 曾攝, 深攝에서만 그 양상이 관찰된다. 이 가운데 支韻, 脂韻, 之韻, 侵韻의 경우는 吳音과 漢音 모두 イ列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나, 蒸韻과 侵韻의 入聲에서는 吳音에서만 그 예가 관찰된다.

셋째, エ列로 대응하는 것은 佳韻의 「俳ベ(吳), 隘エ(吳), 痲懈解ゲ(吳), 皆韻의 「駭ゲ(吳), 齊韻의 「奚ゲ/ケイ, 耕韻의 「責セキ(漢), 庚韻3等の 「冷レイ(漢), 牲甥セイ(漢), 省セ(漢), 清韻의 「腋エキ(漢), 痕韻의 「狠グエン(吳), 山韻의 「限ゲン(吳)」 등이 있다. 이 가운데 佳韻, 皆韻, 齊韻, 痕韻, 山韻에서는 吳音이 エ列로 대응하는 것이 눈에 띄나, 梗攝의 여러 韻에서는 漢音이 エ列로 대응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넷째, オ列로 대응하는 양상은 痕韻의 「懇壑恨コン, 呑トン, 魂韻의 「勃脖ボチ/ホツ, 登韻의 「恒ゴウ(吳)/コウ(漢), 刻コク, 蒸韻의 「色齋穡

9) 吳音과 漢音 모두 ア列에 대응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漢音形을 보이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이는 日本漢字音에서 吳音形을 보이는 것보다 漢音形을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은 데에서 기인하는 현상일 뿐이다.

ソク~ショク(漢), 塞ソク」, 侵韻의 「澁澁ソフ(漢)」, 覃韻의 「穆ソム(吳)」 등이 있다. 이들을 보면 吳音과 漢音에서 모두 ㄷ列로 대응하는 예를 보이는 것은 痕韻과 魂韻, 登韻의 入聲, 侵韻에 국한되고, 나머지에서는 漢音에서 그 양상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다섯째, ウ列로 대응하는 양상은 吳音과 漢音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宋音에서만 관찰된다. 止攝 支韻의 「此雌ス」, 脂韻의 「自ズ」, 四死私師ス」, 之韻의 「子思ス」, 慈事事ズ」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보면 한국한자음의 /·/는 ㄷ列로 대응하는 것이 數的으로는 가장 많은데, 대응하는 韻의 수를 보면 漢音에서 이런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ㄷ列, ㄱ列, ㄷ列로 대응하는 것들은 數的으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吳音과 漢音별로 어떤 韻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지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韓國漢字音의 /·/와 日本漢字音의 대응 양상

대응 모음	해당 韻	
	吳音	漢音
ㄷ列	江韻, 泰韻, 哈韻, 灰韻, 佳韻, 皆韻, 庚韻2등, 耕韻	江韻, 泰韻, 哈韻, 灰韻, 佳韻, 皆韻, 庚韻2등, 耕韻, 痕韻, 山韻, 覃韻
ㄷ列	支韻, 脂韻, 之韻, 侵韻	支韻, 脂韻, 之韻, 侵韻
ㄱ列	佳韻, 皆韻, 齊韻, 痕韻, 山韻	齊韻, 耕韻, 庚韻3등, 淸韻
ㄷ列	痕韻, 魂韻, 登韻, 蒸韻, 覃韻	痕韻, 魂韻, 登韻, 蒸韻, 侵韻
ウ列	宋音: 支韻, 脂韻, 之韻	

3. 日本漢字音과의 비교

3.1. ㄷ列로 대응하는 경우

ㄷ列로 대응하는 韻들의 核母音을 中古音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이들은 漢語에서 前舌低母音 /-a/인 江韻, 佳韻, 庚韻2등, 中舌中低母音 /-e/인 皆韻, 耕韻, 山韻, 後舌低母音 /-a/인 泰韻, 後舌中低母音 /-a/인 咍韻, 灰韻, 覃韻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⁰⁾ 따라서 日本語에서 中舌低母音인 ア列은 原音의 전설저모음, 중설중저모음, 후설중저모음·저모음에 대응한다.¹¹⁾

이 중 江韻의 「學」이 吳音과 漢音에서 모두 ア列로 대응하는 것은 이 글자가 原音의 핵모음이 圓脣母音인 /-o/나 /-ɔ/인 단계를 반영했다기 보다는 平脣의 /-a/, /-a/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글자 이외에도 「幢ダウ」와 같이 이 韻에 속한 글자들이 吳音에서 ア列로 대응한다는 사실과 漢藏對音의 脣·牙·喉音字의 모음이 「降heng, 覺keg, 學heg, 藐meg」처럼 전설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高田時雄 1998: 165) 江韻의 核母音에는 전설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²⁾

10) 漢語의 再構音은 平山久雄(1967)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江韻의 핵모음은 後舌의 /-ɔ/(Karlgren 1954, 陸志韋 1971, 董同龢 1972)나 /-o/(周法高 1973)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平山久雄의 再構音을 따라 前舌의 /-a/로 나타내었다.

11) 古代日本語의 모음체계는 /i/, /e/, /o/의 甲乙의 구별을 반영하여 大野晋(1974: 106)와 같이 前舌高母音 /i/와 前舌中母音 /e/에 대해서 각각 中舌의인 乙類의 /i/와 /e/를 두고, 後舌中母音 /o/에 대해서 中舌의인 /o/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柴田武(1980)에서처럼 8모음으로 보되 /o/에 대해서는 甲類를 後舌低母音의 /ɔ/로 보고 乙類를 後舌中母音의 /o/로 보는 논의도 있다. 반면에 服部四郎(1976)에서는 /o/에 대해서만 甲乙을 인정하고 /i/와 /e/의 甲乙에 대해서는 先行子音의 口蓋化的 有無에 의한 것으로 보아 6모음 체계를 설정한다. 또한 松本克己(1995)와 같이 甲類와 乙類의 구분을 단순히 變異音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하여 /o/의 경우 甲類는 圓脣性이 강하나 乙類는 圓脣性이 약한 차이가 있으며, /i/와 /e/의 경우 甲類는 口蓋화된 것인데 비해 乙類는 口蓋化되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通說을 존중하여 甲乙을 별개의 음소로 파악한 大野晋(1974)을 따라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i	ĩ	u
e	ẽ	ö
	a	

大野晋(1974)

i	ĩ	u
e	ẽ	o
	a	ɔ

柴田武(1980)

i		u
e	ö	o
	a	

服部四郎(1976)

i		u
e		o
	a	

松本克己(1995)

12) 이와 관련해서는 平山久雄(1967), 河野六郎(1968), 李榮(1971)에서는 核母音을

그러면 「學」의 모음이 /·/로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¹³⁾ 이에 대해서는 古音인 [-ɔk]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된 바 있는데(權仁瀚 1997), 베트남 한자음에서 「學」이 [hɔk]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은 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三根谷徹 1972: 349, 伊藤智由 2002).¹⁴⁾ 실제로 江韻은 上古音에서 東部[-oŋ]와 冬部[-uŋ]에 속했던 것이므로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¹⁵⁾ 그런데 비원순모음인 /·/로 원순모음인 原音의 /-ɔ/를 반영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吳音의 일부가 ㄱ列로 대응하는 양상을 고려할 때 李敦柱(1995: 332)에서 추정된 바와 같이 江韻이 北方音에서 /-ɔ/ > /-a/로 변화하는 단계의 음을 반영했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이 과도기에 실현되었을 /^{*}-v/ 정도의 음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吳音 가운데 「窓」, 「江」과 같이 ㄷ列로 실현되는 것들은 原音의 /-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學」은 上古音까지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한국한자음에서 江韻이 보이는 통상적인 대응 양상보다는 다소 古音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용 빈도가 높은 글자이므로 예외적으로 古音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볼 경우에 吳音에서 ㄱ列로 대응하는 것은 中舌母音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양자 간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蟹攝에서 哈韻은 /·i~ɪ/로 佳韻과 皆韻을 합한 듯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泰韻과 哈韻이 하나로 합해지고, 皆韻, 夬韻, 皆韻이 佳韻으로 합해진 《慧琳音義》와는 차이를 보인다(有坂秀世 1957, 河野六郎 1968,

/-a/로 재구하고 있음이 참고된다. 또한 清代에 見系의 경우 羣母 일부와 見·溪母의 洪音 開口 2등과 細音이 口蓋音化되어 無氣音은 基母[tɕ-]로 有氣音은 欺母[tɕh-]가 되었는데, 이 韻에 속하는 「江」이 본래 齊齒呼와 撮口呼가 아닌데도 欺母가 되었음을 볼 때 江韻은 前舌化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3) 이런 양상을 보이는 또 다른 예인 「鸞」은 「學」의 類推音으로 판단되므로 「學」에 준해서 생각할 수 있다.

14) 周法高(1973)에서는 /-o/로, 陸志韋(1971), 董同龢(1972), 藤堂明保(1985)에서는 /-ɔ/로 核母音을 재구하고 있기도 하다.

15) 「學」은 覺部에 속했던 것인데, 中古音으로 이동하면서 覺部 중에서 1등 合口는 沃韻이 되었고, 3등 合口는 屋韻이 되었으며, 2등 開口는 覺韻이 되었다.

권인한 2006, 伊藤智ゆき 2002). 이런 현상을 河野六郎(1968)에서는 /·|/를 b층에 두고, /h/를 c층에 두어 이 둘의 차이를 古層과 新層의 차이로 해결하려 하였다. 이런 처리는 이 예들이 上古音 之部라는 점에서 唇音字가 「杯비, 梅미」와 같이 /·|/로만 대응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용이하기는 하나, 哈韻의 「開기, 臺디, 來리」는 /·|/로 대응하는 반면 「漑개, 乃내 埃애」는 /h/로 대응하고 皆韻의 「骸히」와 「介개」가 상이한 대응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들을 모두 中古音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핵모음이 /-a/나 /-α/인 것은 /ㅏ/로 대응하나, 핵모음이 /-ʌ/ 혹은 /-ə/인 哈韻과 灰韻의 唇音字와 핵모음이 /-e/인 皆韻의 開口와 合口 가운데 唇音字 아래에서는 /·|/로 대응하는 것은 中古音의 中舌的인 특색을 /·/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로 대응하는 것들은 대체로 中古音과의 대응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것이 灰韻 중 唇音 聲母字가 /ㅏ/가 아닌 /·|/로 대응하는 것인데, 이는 /·/에 [唇音性]이 더해지면 /ㅏ/가 되는 것을 보여 준다는 면에서 /·/가 /ㅏ/와 圓唇性 有無에서 대립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梗攝의 庚韻2等, 耕韻이 ㅏ列로 대응하는 것은 이들의 핵모음이 각각 /-a/, /-e/에 대응하는 것임을 볼 때 中舌低母音인 ㅏ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吳音에서 「更坑キヤウ, 客キヤク, 白佰百ヒャク」, 「萌ミャウ, 脈ミャク」 등에서 볼 수 있듯이 口蓋性 介音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庚韻2等과 耕韻의 核母音에 前舌的인 특징이 상당히 강했음을 보여 준다.

3.2. ㅣ列로 대응하는 경우

ㅏ列로 대응하는 韻들의 核母音은 前舌中高母音 /-e/인 支韻, 脂韻, 侵韻, 中舌中母音 /-ə/인 之韻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일본어의 /ㅣ/는 前舌高母音과 中舌中母音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이 口蓋性 介音 /-j-/를 지니는 韻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中舌中母音

도 실제로는 前舌高母音化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吳音에서 ㄱ列로 대응하는 것 가운데에서 吳音 이전의 자료에서는 다른 列의 음으로 실현되는 것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推古期 遺文의 常用假名이었던 「思」를 비롯하여 「己」, 「里」, 「理」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ソ乙’, ‘コ乙’, ‘ロ乙’, ‘ロ乙’로 나타난다. 그러나 후대의 假名에서는 이들은 각각 ‘シ’, ‘キ’, ‘リ’, ‘リ’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 用字들이 [-之部-之韻]에 속하는 것이고 南北朝音에 이르러 核母音이 /-ə/ > /-ε/가 된 것임을 고려하면(丁邦新 1975), 古層은 魏晉音 이전의 음과 가까운 것이고 新層은 南北朝音 이후의 음과 가까운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古層과 新層이 반영하고 있는 原音이 다를 수 분명히 볼 수 있는데,¹⁶⁾ 古層의 假名은 漢語를 직접 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古代國語와의 관련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中世漢字音에서 「思」의 핵모음이 /·/인 것은 古代日本語 자료의 이와 같은 양상을 고려할 때 古音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古代日本語의 양상을 고려할 때 古代國語에서 「思」, 「己」, 「理」, 「里」는 모두 동일한 核母音を 가졌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齒頭音 心母인 「思」가 /·/로 대응하는 것만을 古音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聲母의 글자들이 /|/로 대응하는 것을 中古音을 반영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齒頭音만이 예외적으로 古音을 고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중세한자음에서 止攝의 齒音字들에서 핵모음이 /·/로 대응하는 것들이 古音을 반영한 것인지(박병채 1971, 최남희 2006), 近代漢語를 반영한 것인지(李敦柱 1981, 權仁瀚 1997, 김무림 2006)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

16) 그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면 「思」는 古層과 中間層에서는 ソ乙로 シ는 《萬葉集》에 비교적 널리 쓰이며, 「己」는 古層에서는 コ乙로 新層에서는 キ乙로, 「里」는 古層에서는 로乙로 中間層에서는 리로, 「理」는 古層에서는 로乙로 中間層 내지 新層에서는 리로 나타나며(大野透 1962: 74),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이 이외의 다른 用字들이 中間層부터는 ㄱ列로 대응함을 볼 때 대체로 中間層에서부터는 반영하고 있는 原音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관련하여 生母의 「史스」와 淸母의 「次츠」의 경우가 참고 자료가 되어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史스」의 경우는 新羅의 鄉歌에는 “兒史(즈시)<慕竹旨郎歌>, 母史(어시)<安民歌>, 栢史叱枝次(자싯가지)<讚耆婆郎歌>, 誓音深史隱(다딤 기프신)<願往生歌>”과 같이 ‘시~시’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李敦柱 1979, 金完鎭 1980). 그리고 「次츠」의 경우는 ‘枝次(가지)<讚耆婆郎歌>’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음이 /ㅣ/임을 알 수 있다.¹⁷⁾ 또한 《三國史記》 地理志에서 보이는 ‘忽次=古次=口=串’에서 訓讀表記인 ‘口’와 ‘串’가 同音異義語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일본어가 각각 “kuti>kuči”와 “kusi”임을 볼 때 이들은 모두 t 구개음화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次」의 핵모음은 /*ㅣ/였던 것으로 보인다(金完鎭 1971: 90-94 참고).

여기에서 중세한자음의 「史스, 次츠」가 古音에 기반한 것이라고 본다면, 鄉歌에 나오는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가 결합한 ‘兒史(즈시), 深史隱(기프신)’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과 ‘忽次=古次’에서의 口蓋音化의 同化主를 /·/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그리고 이렇게 핵모음으로 /ㅣ/로 지니던 것들이 中世漢字音에서는 上古音에 기반한 /·/를 지니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韓國漢字音의 齒頭音과 齒上音 아래에서 핵모음이 /·/로 나타나는 것들은 近代漢語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것이다.

侵韻의 경우는 「糝슴」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乙類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 「糝슴」은 乙類의 「參슴」에 유추된 것일 수 있으므로 侵韻의 경우는 乙類가 ㄹ列에 대응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글자는 [侵韻(/-əm/)-侵韻(/-em/)]에 속하는 것으로 吳音이 ‘シム>シン’에서 보듯이 ㄹ列인

17) 한 심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次」가 《三國史記》의 ‘異次頓’, ‘厭觸’, 《鄉藥救急方》의 ‘道羅次(도랏)’의 해독에서 음절 발음을 나타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 ‘枝次’에서의 「次」도 음절 발음을 나타낸 것을 가능성이 있다. 《龍飛御天歌》의 “뵈야미 가칠 므러 즘겻 가재 연즈니”에도 이와 관련하여 참고 자료가 된다.

것은 中古音에 가까운 특색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韓國漢字音에서 甲類는 모두 /l/로 대응하고 핵모음이 /·/로 대응되는 글자들은 모두 乙類이고 聲母가 正齒音임을 감안하면 이 음들은 近代漢語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侵韻에 반영된 /·/는 中舌的인 특색을 반영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3.3. ㅈ列로 대응하는 경우

ㅈ列로 대응하는 韻들은 核母音이 전설중고모음 /-e/인 齊韻, 전설중저모음 /-ɛ/인 淸韻, 전설저모음 /-a/인 佳韻, 耕韻, 庚韻3등, 중설중고모음인 /-ə/인 痕韻, 중설중저모음 /-ɐ/인 皆韻, 耕韻, 山韻이다.

이 중 핵모음이 /-a/인 庚韻3등(/-iaŋ/), 淸韻(/-iaŋ/)이 ㅈ列이 아닌 ㅈ列로 대응하는 것은 介音의 영향에 의해 高母音화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介音이 없는 耕韻(/-eŋ/)은 核母音이 /-ɐ/인 것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佳韻의 「俳べ, 隘エ」와 皆韻의 「駭ゲ」는 上古音에서 之部(/-ə/)에 속한 것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之部 소속자 중 核母音이 ㅈ列 乙類로 나타남을 고려하면 이들도 上古音에서 中古音으로 이행하면서 핵모음이 /-ə/에서 /-a/로 변하는 단계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漢音에서 ㅈ列로 나타나는 것은 /-a/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韓國漢字音의 /·/는 中舌中低母音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吳音에서 痕韻의 「狠グエン」과 山韻의 「限ゲン」이 ㅈ列로 대응하는데 이들은 모두 上古音에서 文部(/-ən/)에 속하는 것이다. 이 중 山韻의 핵모음을 /-ɐ/ 이외에도 /-a/나(陸志韋 1971) /-ä/나(李榮 1971), /-æ/(董同龢 1972, 周法高 1973)로 재구하는 견해가 널리 관찰되며, 山韻은 魏晉~南北朝 시대에는 /-a/ > /-æ/를 거친 것으로 재구되고 있음을 볼 때(丁邦新 1975), 前舌的인 특색을 분명히 지니는 소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痕韻은 핵모음이 /-ə/로서 中舌的인 특색을 지닌 것으로 ㅈ列로 대응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

서 이 경우는 「限ゲン」에 유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韓國漢字音에서 痕韻의 글자들 대다수가 /-/로 나타나는 것은 中舌母音 /-ə/의 단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생각하여 보면 山韻의 「限흔」을 痕韻의 「狠恨흔」의 유추로 본 것(伊藤智ゆ키 2002: 204)도 이들이 中古音 이전의 古音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層位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痕韻에서 /·/로 대응하는 것들은 권인한(2006: 7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曾攝의 핵모음이 상승하기 이전의 古形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 ㄱ列로 대응하는 양상으로부터 우리는 /·/가 前舌의 核母音을 지니고 있는 韻에도 대응하는 음성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는 소리였을 것임을 추정하여 볼 수 있다.

3.4. ㄱ列로 대응하는 경우

ㄱ列로 대응하는 韻들은 핵모음이 /-ə/인 痕韻, 魂韻, 登韻, 蒸韻(入聲)과 핵모음이 /-e/인 侵韻이 있는데, 중설중모음인 /-ə/가 ㄱ列로 대응하는 것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吳音과 漢音에서 모두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서 後舌의 /-ɯ/를 核母音으로 지니는 韻 가운데 咍韻(/-ai/), 灰韻(/-uɛi/)의 경우에는 ㄱ列로 대응하여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韻尾 /-i/에 의해 전설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合口韻인 魂韻에서는 唇音字에서만 /·/로 대응하는데 이는 /·/에 [순음성]이 더해지면 /ㄱ/가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 /ㄱ/와 圓唇性을 기준으로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登韻의 경우는 「恒흥, 刻국」과 같이 牙喉音字에서 핵모음이 /·/로 대응하는 예들이 있고, 「肯궁, 登등, 得득」과 같이 /-/로 대응하는 예들이 있다. 이들 중 /-/는 /·/가 口蓋性 韻尾에 의해 다소 전설화되고 고모음화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로 대응하는 것이 변화 이전의 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古音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권인한 2006: 76).

이와 관련하여 字釋類에 실린 「賊」의 漢字音を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訓蒙字會》에는 「盜 도죽 도」, 「寇 도죽 구」, 「賊 도죽 적」과 같이 訓에서 ‘적’이 ‘죽’으로 주기된 것에 비해서, 《千字文》에서는 「賊 도적 적」, 「盜 도적 도」로, 《新增類合》에서도 「盜 도적 도」, 「賊 도적 적」으로 주기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千字文》 중에서도 石峰千字文 內賜本에서는 「盜 도죽 도」, 「賊 도죽 적」으로 주기되어 있다(이기문 1981: 11-14). 이들 문헌의 간행 순서와 중세국어의 어형을 고려하면 ‘盜賊도죽>도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 > /ㄱ/의 변화를 상정하게 된다. 字釋類 자료의 이런 양상은 /·/가 古音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을 보여 준다.¹⁸⁾ 이들이 ‘ㄷ’과 같이 吳音과 漢音에서는 모두 ㄷ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는 /ㄴ/, /ㄹ/, /ㄷ/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음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蒸韻에서는 入聲 이외에는 /·/로 대응하는 예들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甲類에서는 「升승, 蒸중, 仄측」과 같이 齒上音과 正齒音 아래에서는 /-/로 대응하는 예들이 있는데, 이는 《東國正韻》의 注音과 동일하며, 《古今韻會舉要》의 체계와도 일치하는 특성으로(권인한 2006: 76), 이때의 /-/는 硬口蓋韻尾의 영향으로 핵모음의 고모음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聲母字에서는 핵모음이 대개 /ㅣ/로 대응하고, 「力력」은 /ㄷ/로 대응하는 점을 고려하면 蒸韻의 기저 핵모음이 중설중모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漢音과는 달리 吳音에서 ㄷ로 대응하는 것에 覃韻이 있다. 이 韻에서는 「食トム>トン, 紺コム>コン, 蠶ゾム>ゾン」과 같이 ㄷ로 대응하는 것과 「堪カム>カン」과 같이 ㄹ로 대응하는 것이 공존한다. 이 가운데 ㄷ로 대응하는 것에 관해서는 韻尾 /-m/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나(李敦柱 1995: 384), ㄹ로 대응하는 것들도 모두 /-m/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韻尾 /-m/의 영향을 일부에서만 받

18) 또한 「德덕, 賊적」과 같이 /ㄱ/로 대응하는 것 역시 古音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이 논의된 바 있는데(河野六郎 1968),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는 더욱 古音을 반영한 것이 될 것이다.

았다는 점과 「食, 紺」과 「堪」 사이의 時差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再考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漢音이 ア列임을 고려한다면 「堪カム>カン」은 후대의 음이 덧씌워진 中古音에 가까운 단계의 吳音일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重韻 가운데 핵모음이 /-a/인 談韻이 吳音에서도 「甘カム>カン, 三サム>サン, 藍ラム>ラン, 塔タフ>トウ, 盍ガフ>ゴフ」와 같이 ア列로 대응하는 양상을 고려하면 中古音에서 覃韻과 談韻의 핵모음이 다르다는 점과 上古音에서의 차이(覃韻은 侵部(/-əm/)이고 談韻은 談部(/-am/))로 인한 핵모음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吳音에서 オ列로 대응하는 예를 통해 볼 때 覃韻은 上古音이나 中古音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중설모음을 핵모음으로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魏晉南北朝音이 /-əm/으로 재구되는 바(丁邦新 1975)는 이와 같은 우리의 추정이 타당함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日本書紀》에서 ‘耽羅’에 ‘トムラ’가 주기되어 있는 사실인데, 覃韻 ‘耽’이 ト로 즉 オ列 乙類로서 주기된 것은 覃韻의 핵모음이 ア列보다는 オ列 乙類에 가까운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중설적인 특색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해서는 4장에서 상술하도록 할 것이다.

痕韻은 韓國한자음에서 주로 /-/로 대응하나, 일부 /·/로 대응하는 「懇ㄱ, 「呑呑」과 같은 예가 있다. 韓國漢字音에서 1등의 痕韻과 3등의 欣韻은 일부 예를 제외하고는 모음이 /-/로 합류한 양상을 보여 《慧琳音義》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데(권인한 2006: 71-72), 이와 같은 韓國漢字音 및 吳音의 대응 양상을 고려하면 痕韻과 欣韻의 핵모음은 /-ə/에 잘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5. 우列로 대응하는 경우

漢音·吳音과는 달리 宋音에서 止攝의 글자들이 우列로 대응하는 특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吳音 및 漢音과 같은 선상에 두고 논의

하기는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의 음성적 특성을 살피는 데에는 참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들은 止攝의 支·脂·之韻에서 開口의 齒音字로, 이는 《中原音韻》에서 齒音字만 支思韻이 된 것(tsi>tsw̃, si>sw̃)과 관련된 현상이다(沼本克明 1986: 270-279).¹⁹⁾ 이는 모음이 /·/인 한국한자음이 일본어의 ㄱ列에 대응하는 유일한 경우이다. 그런데 일본어의 ㄱ列은 後舌高母音이기는 하나 국어의 /ɿ/와는 달리 齒音 아래에서는 中舌에 가까우며 圓脣性도 약화된 음성적 특색을 보인다. 따라서 이런 특징을 고려할 때 中世漢字音의 齒音 아래의 /·/는 ㄱ列의 이와 같은 음성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中舌高母音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²⁰⁾

3.6. 대응 양상으로부터 보이는 /·/의 層位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반영하고 있는 양상을 吳音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ㄱ列로 대응: 江攝 江韻의 「學_후」은 古音을 반영한 것이다. 蟹攝 灰韻의 「杯_비, 梅_미」, 哈韻의 「開_기, 臺_디, 來_리」 등은 中古音을 반영한 것이며 梗攝의 庚韻2等, 耕韻도 中古音을 반영한 것이다.
- (2) ㄷ列로 대응: 止攝의 경우는 吳音과 漢音 모두 ㄷ列로 대응한다. 侵韻의 예들도 ㄷ列로 대응한다. 그런데 /·/를 지닌 止攝 齒頭音은 宋音과의 대응 등으로 볼 때 近代漢語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19) 이렇게 支思韻이 된 聲母는 精組, 莊組, 章組, 日母와 知組 일부이다.

20) 중세한자음의 止攝의 齒音字 가운데 ㄱ모음이 /·/로 대응하는 것은 齒頭音과 齒上音에서만 나타나는데, 齒頭音에서 이런 양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베트남 한자음에도 있는데 보통은 ㄱ모음이 /-i/로 나타나나 齒頭音이나 齒上音에서는 /-u/로 나타나는 예가 있다(三根谷徹 1972). 그런데 이런 양상은 韓國漢字音에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 이런 면에서 伊藤智ゆき(2002: 162)에서는 한국한자음에서 더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본 바 있다. 그렇지만 /·/를 별도의 층으로까지 구분한 것은 아니다.

있고, 侵韻의 正齒音의 예들은 日本漢字音과의 대응만으로는 그 층위를 알기 어려우나 이에 해당하는 글자가 乙類에 속하는 것이고 漢語와의 대응을 고려할 때 近代漢語를 반영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3) エ列로 대응: 吳音에서 佳韻의 「俳べ, 隘エ」와 皆韻의 「駭ゲ」은 上古音에서 中古音으로 이행하는 단계의 음을 반영한 것이다. 痕韻의 「狠グエン」과 山韻의 「限ゲン」은 中古音 이전의 古音을 반영한 것이다.
- (4) オ列로 대응: 覃韻의 「貪トム>トン, 紺コム>コン」과 같이 オ列로 대응하는 것은 中古音 이전의 층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글자가 上古音 文部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과 魏晉南北朝音이 참고된다. 痕韻의 「懇곤」, 「呑툰」과 같은 예는 /一/가 《慧琳音義》와 부합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단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ウ列로 대응: 이는 宋音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止攝 齒音字들은 近代漢語를 반영한 것이다.

이상의 특징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吳音은 中古音 이전이나 中古音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中古音 기반의 漢音과는 달리 吳音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魏晉南北朝音과 中古音 사이의 漢語를 알 필요가 있고, 上古音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²¹⁾ 그리고 中古音이라도 漢音이 반영하고 있는 中古音과는 시기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初期 中古音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를 지닌 것들 중에 止攝, 蟹攝, 深攝의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古音을 반영한 것들이 많다는 면에서 /・/는 吳音과 대응되는 것이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 음가 구명을 위해서는 고대일본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와

21) 또한 江東 지방의 方言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이 있는 고대일본어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4. 古代國語, 古代國語를 反映한 日本의 資料, 漢語 轉寫 資料 및 日本의 近代國語 轉寫 資料와의 비교

4.1. 古代國語에서의 /·/의 양상

吳音과의 대응 양상을 종합하여 보면 /·/는 ㄱ열, 才열, ㄷ열에 모두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가장 많은 대응례를 보이는 것은 ㄱ열이고 그 다음으로는 才열로서 /·/는 음성적으로는 이들 두 소리와 가장 가까운 모음이었음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ㄷ열로 대응하는 예들도 적지 않음을 통하여 음성적으로는 전설적인 특색도 반영할 수 있었던 소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는 음성적으로는 ㄱ열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才열 및 ㄷ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소리였음을 알 수 있다. 漢音과의 대응 양상에서 볼 수 있는 것도 개별적인 양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韻別 대응 양상은 이와 같다. 이런 대응 양상은 古代日本語의 母音體系를 고려할 때 /·/가 中舌母音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이 音韻論的으로 有意味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를 지닌 형태들이 鄉歌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鄉歌에서 /·/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 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²²⁾

- (1) ‘史’, ‘次’: 이들은 각각 [之部-之韻] 生母와 [脂部-脂韻] 淸母의 用字이다. ‘史’는 “兒史毛達只將來吞隱日<遇賊歌>,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願往生歌>, 迷反群無史悟內去霽<普皆廻向歌>”과 같이 ‘시’를

22) 이하의 내용은 李準煥(2011)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나타내는 데에 쓰인 것이며, ‘次’는 “栢史叱枝次高支好<讚耆婆郎歌>”와 같이 ‘지’를 나타내는 데 쓰인 것이다. 이로써 中世漢字音에서 이들이 각각 ‘스’, ‘츠’로 나타나는 것은 鄉歌와는 대응되지 않으므로 이때의 /·/는 近代漢語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²³⁾

- (2) ‘恨’: [文部-痕韻] 匣母의 用字로 “國惡太平恨音叱如<安民歌>”에서 보듯이 ‘흔’을 표기하는 데에 쓰였다. 文部에서 痕韻으로 이어진 것들이 核母音이 /-ə/임을 고려할 때(丁邦新 1975), /·/는 /-ə/에 대응하며 主層이 /-/임을 볼 때 中古音 이전의 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3) ‘隱’: [文部-欣韻] 影母의 用字로 “善化公主主隱<薯童謠>”에서 보듯 ‘은/은’을 표기하는 데에 쓰였다. 文部/-ə/가 東漢代에 핵모음이 상승하여 [-i]와 같이 된 것을 고려하면(韓晙濤 2009) 東漢代 이후의 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鄉歌에서는 母音調과 가 반영되지는 않으므로 정확한 음상을 알기는 어려우나, ‘隱’도

23) 또한 “斯羅[或稱 斯盧 或言 新羅]<史記 권4·智證麻立干>”를 비롯하여 ‘斯盧~新盧→新羅→斯羅→尸羅[sira](이상 3세기 이후)>薛羅1[sja(r)ra](4세기 말)>薛羅2[sjä(r)ra](9세기 말)>徐羅伐[sjera(-bəl)](12-13세기)>徐伐[sje(-bəl)](12-13세기)]와 같은 新羅 國號의 異表記는 中世漢字音이 ‘스’인 ‘斯’의 한자음이 “시”로 재구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는 면에서(權仁瀚 1997, 權仁瀚 2008가) 이 用字들과 같은 특징을 보여 준다. 또한 ‘新羅’에 대한 日本 기록에 ‘新羅, 新良’ 이외에 ‘志羅紀(シラキ>シラギ)’의 예가 있음(權仁瀚 2008나)도 新羅의 ‘新’가 “시”로 재구되는 것임을 뒷받침해 준다. 여기에 “末斯欣<史記>”에 대하여 《日本書紀》에서는 “微叱許~微叱己”과 같이 ‘斯’가 ‘叱’와 同音關係를 보이는 것은 ‘斯’의 核母音이 ‘시’에 대응하는 /i/였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만일 ‘斯’의 核母音이 /·/였다면 《日本書紀》에서는 아마도 才列의 음을 지닌 예와 同音關係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 ‘叱’은 ‘シ’의 표기에 흔히 ‘之’, ‘師’가 쓰인 것과는 달리 《日本書紀》의 고대 한국 관계 기록에 한해서 약 20회 가량 나타난다(藤井茂利 1996 참고). 그러나 심사위원 한 분으로부터 ‘新羅’가 ‘서불’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면 “새/시”나 “샤/셔”로 재구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新’의 訓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생각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한바 후고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은’과 같이 실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²⁴⁾

- (4) ‘焉’: [元部-仙韻] 影母의 用字로 “民焉狂尸恨阿孩古<安民歌>”에서 보듯이 보조사 ‘은/은’을 표기하는 데에 쓰인 것이다. 이는 元部 /-an/>仙韻/-ɛn/(平山久雄 1967)~/-jæn/(董同龢 1972)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南北朝音에서도 /-ɛn/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丁邦新 1975).
- (5) ‘察’: [月部-鎋韻] 初母의 用字로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怨歌>”에서 보듯이 ‘술’ 또는 ‘술’을 나타낸 것이다. ‘술’ 또는 ‘술’이라는 漢字音이 없다는 문제는 있으나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라면 /ㅅ/로써 /ㅅ/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月部-鎋韻]의 核母音은 上古音>魏晉南北朝音>中古音 모두 한결같이 /-a/를 유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鄉歌에서의 /ㅅ/는 /-ə/, /-a/, /-ɛ/와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대응상의 특징은 吳音과의 비교로써 얻은 양상과 거의 일치하여 고대국어의 /ㅅ/가 中舌母音의 특징을 보임을 드러내고 있다.

4.2. 古代國語를 反映한 日本 資料에 반영된 /ㅅ/

앞에서 鄉歌의 用字 검토를 통해서 /ㅅ/가 中舌母音의 특성을 보인다는 면을 살펴본 바가 있기는 하나 이들은 거의 다 文法形態素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語彙形態素 내의 /ㅅ/가 어떤 양상을 보이든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日本 資料에 표기되어 있는 古代國語 語彙形態들의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일본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4) 口訣字에서도 ‘隱’과 이에서 온 ‘ㅍ, ㅑ’은 ‘ㄴ/ㄴ/은/은’으로 읽혀 이와 같은 양상이 이어져 있다.

- ① 己富利, 己富里 《日本書紀》
 ② 耽羅, 耽羅, 耽羅, 都羅, 耽羅王 《日本書紀》

‘己富利’는 ‘コホリ’에 대응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己’가 コ乙類에 속하는 것이므로 有坂秀世(1934)의 音節結合法則(2)에²⁵⁾ 의해서 ‘富’는 우列이 아닌 오列 乙類로 판단된다.²⁶⁾ 실제로 ‘富’는 《古事記》에서는 主流에 속하는 用字로서 ‘番, 蕃’과 같이 ホ(ホ)乙類를 대표하는 假名이었다(福田良輔 1955, 馬淵和夫 1957).²⁷⁾ 이는 ‘己富里’과 마찬가지로 ‘郡’을 뜻하는 古代國語의 音譯한 것으로 간주된다(河野六郎 1979: 566, 藤井茂利 1996/2001: 30-31). 이것은 村 즉 pŏr(平地) 또는 kopŏr(大平地)과 관련되는데, 이를 音譯한 것이 ‘伐’, ‘夫里’이고 音借한 것이 ‘火’로 판단된다. ‘火’는 奈良時代의 常用假名으로서 호乙類를 나타내던 것이다(大野透 1962: 196-200). 그리고 ‘火’에 해당하는 中世國語가 ‘불’임을 볼 때 핵모음이 中舌母音에 대응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己富利’를 중세국어와 연결을 지어 보면 “*ㅈ불>ㅈ웁>고웁”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음절에서도 /·/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코乙類인 ‘己’에 첫째 음절의 /·/가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乙類인 ‘富’에 둘째 음절의 /·/도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는 모두 오列 乙類에 대응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耽羅, 耽羅, 耽羅, 都羅, 耽羅, 耽羅王’은 《日本書紀》에서는 ‘耽羅, 耽羅’만이 23예가 보이나 다른 문헌에는 ‘耽牟羅’, ‘耽浮羅’, ‘耽牟羅’의 표기도 보이는 것이다.²⁸⁾ 이 중 두 번째 음절에서 ‘牟’와 ‘浮’가²⁹⁾ 사

25) 이 法則의 요지는 우列 음과 乙類의 오列 음은 동일 결합 단위 내에 공존하는 예가 적으며 만일 우列 음과 오列 음이 공존하는 경우에 오列 음은 乙類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고대일본어의 母音調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26) 또한 ‘層富顯’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즉 ‘層’가 ソ乙類이므로 古代日本語의 音節 結合法則에 따라 이를 ソㅈ로 보기에겐 문제가 있다. 따라서 ‘富’의 古音은 호이지 ㅈ로 읽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藤井茂利 1996).

27) 또한 이보다 일찍 推古期遺文에서도 호乙類의 音假名으로 쓰였던 것이기도 하다(大野透 1962: 50-51).

28) 이 중 ‘耽’은 ‘耽’의 誤字로 보이며, ‘耽’은 ‘耽’의 俗字이다. 이 ‘耽羅’에 관한 전반

용되는 것을 보아 두 번째 음절에서 Δ 음이 실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日本書紀》에 표기된 예 가운데 몇 군데에는 ‘トムラ’(前田家所藏本, 京都北野神社所藏兼永本, 釋日本紀 寬文九年刊本), ‘トラ’(寬文九年刊本) 이렇게 두 가지의 古訓이 붙어 있다. 여기의 ト는 乙類에 해당하는 것으로 ㄸ列 乙類가 ‘耽’에 대응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耽’의 핵모음은 /·/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耽’은 咸攝 覃韻에 속하는 것으로 平山久雄(1967)에서는 /-am/으로 재구를 하고 있으나 上古音이 侵部로서 /-am/으로 재구되는 것을 감안하고(李方桂 1971, 董同龢 1972, 王力 1979, 周法高 1984, 藤堂明保 1985), 南北朝代에도 /-am/을 유지했던 것으로 재구가 되므로(丁邦新 1975), 中古音 初期까지는 /-am/을 유지했었을 가능성이 있다.³⁰⁾ 따라서 ‘耽’은 中世漢字音 ‘담~탐’과는 다른 *‘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특징은 /·/가 ㄸ列 乙類에 대응하여 中舌中母音의 특징을 보여 줌을 드러내

적이며서도 세밀한 논의는 藤井茂利(1996/2001: 345-360)에 상세히 되어 있다. 이 글도 이 논의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밝혀 둔다. ‘耽羅’에 관한 《日本書紀》의 기록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①耽羅: 南海中耽羅人 初通百濟國<繼體2年>, ②耽羅: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納<齊明7年>, ③耽羅: 是月耽羅遣王子始如等 貢納<天智6年>, ④都羅: 耽羅遣王子久麻藝 都羅宇摩等 朝貢<天武2年>, ⑤耽羅: 耽羅王姑如到難波<天武4年>, ⑥耽羅: 耽羅遣王子都羅 朝貢<天武6年>, ⑦耽羅王/佐平加羅: 耽羅王遣佐平加羅 來獻方物<持統2年>

29) 여기에서 ‘牟’의 음은 Δ (吳音), Δ 우(漢音)로서 ‘浮’의 Δ (吳音), Δ 우(漢音)와는 모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 ‘牟’는 吳音으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明母인 ‘牟’에 並母인 ‘浮’가 대응되어 聲母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平安時代 초기의 自覺大師 圓仁이 쓴 《在唐記》「本鄉摩字音. 但加鼻」로 되어 있어서 日本語의 [鼻音性]이 梵語만큼은 강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고, 平安時代 말기의 東禪院 心蓮의 《悉曇口傳》에 「順外分上下合」이라고 되어 있어서 唇音임을 보여주나 /b/와 마찬가지로 [鼻音性]에 관한 내용이 지적되어 있지 않다(馬淵和夫 1971: 72-73 참고). 이를 참고하여 볼 때 ‘牟’에 ‘浮’가 대응하는 것은 [鼻音性]과 관련한 日本語의 이런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浮’의 吳音이 有聲音인 ‘ Δ ’임을 볼 때 ‘耽’으로 轉寫된 음절말음이 有聲子音이었음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周法高(1973)과 藤堂明保(1985)에서는 中古音을 /-am/으로 재구를 하고 있음이 참고된다.

는 것이다.³¹⁾

이 ‘耽羅, 耽羅’가 後代の 《今昔物語》(平安時代 말기, 1120년대 이후)에 ‘都羅’로 표기된 것은 中古音 遇攝 模韻/-o/에 대응하는 卜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日本語의 ㄱ列 乙類가 /ō/>/o/와 같이 ㄱ列의 『於』로 변화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어의 어휘 형태를 반영한 고대 일본 자료에서 /・/는 ㄱ列에 대응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³²⁾

4.3. 漢語의 대응 양상과의 비교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日本漢字音과의 비교로써 얻은 결과가 /・/의 모음체계상의 위치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漢音과 宋音에 대응하는 /・/가 어떤 음성적인 특성을 보이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의 2.2 양상의 기술로부터 알 수 있듯이 漢音과의 대응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吳音에서 ㄱ열로 대응하던 것들이 상당수 ㄱ列로 대응하고(예: 佳韻, 皆韻, 山韻), 일부는 ㄱ列로 대응한다(예: 痕韻). 둘째, ㄱ列로 대응하던 것 가운데 일부가 ㄱ列로 대응한다(예: 覃韻). 셋째, ㄱ列로 대응하던 것 가운데 일부가 ㄱ列로 대응한다(예: 侵韻). 넷째, ㄱ列로 대응하던 것 가운데 일부가 ㄱ열로 대응한다(예: 耕韻). 따라서 吳音과 漢音의 대응 양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는 ㄱ열과 ㄱ열에 대응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ㄱ열로 대응하는 것들은 줄어들게 되었고 ㄱ열로 대응하는 것은

31) 馬淵和夫(1971: 63-64)에 의하면 平安時代 초기의 /ō/는 南天梵語의 /o/에 대응하는데, 南天梵語의 /o/는 中天梵語에 비해서 中舌, 北天梵語에 비해서는 下舌이었을 것임이 추정되어 中舌中母音의 특색을 보여 준다.

32) 이 이외에도 ‘トリ: 돛’, ‘ゴトシ: 곤호’, ‘モト: 밑’과 같이 ㄱ列 乙類를 모음으로 지니는 日本語 어휘들 중 /・/를 지닌 國語의 국어 어휘와 유사성을 보이는 것들이 더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는 사실이다(河野六郎 1979: 561).

없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漢音 전체적으로는 ㄱ열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많고 ㅈ열로 대응하는 것이 그 뒤를 잇게 되었다.

다음으로 吳音·漢音과 宋音을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점은 ㅅ열로 대응하던 支韻·脂韻·之韻이 宋音에서는 ㄱ열로 대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原音의 中舌母音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吳音>漢音>宋音에 이르는 대응 양상의 변화에서도 /·/는 中舌의인 특색을 유지된 것임을 할 수 있다. 또한 /·/가 음성적으로는 ㄱ열과 가장 가까운 특색을 지니면서도 그 音域이 상당히 넓은 中母音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양상이 漢語와의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의 대응 양상에서 알 수 있는 /·/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鷄林類事》에서 /·/의 양상을 中古音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姜信沆 1980: 162-164 참고).

<표2> 《鷄林類事》의 /·/의 대응 양상

漢語國語	所屬韻	漢語國語	所屬韻
ii : ·	支韻	ə : ·	德韻
i : ·	之韻, 紙韻	uə : ·	魂韻, 恩韻, 沒韻
a : ·	麻韻, 馬韻, 歌韻	a : ·	曷韻, 鎋韻, 感韻, 闕韻
iuə : ·	文韻, 問韻, 術韻	ua : ·	末韻

이 중 일부는 中古音에서 宋代音으로 이르는 과정에 다음과 같이 核母音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歌韻·曷韻·闕韻·末韻은 /-a/ > /-a/로 바뀌었고, 둘째로 感韻은 /-ʌ/ > /-a/로 바뀌었다. 이들을 보면 中古音의 後舌低母音과 後舌中低母音이 각각 /-a/로 바뀌어 前舌母音化 및 前舌低母音化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支韻, 之韻·紙韻은 각각 /-iě/ > /-ii/, /-iǝ/ > /-i/가 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兒, 慈, 子, 此」와

같이 聲母가 齒頭音이나 日母에 속하는 것들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에 대응하는 宋代音은 中舌母音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中舌母音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냄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低母音의 특색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알 수 있다(姜信沆 1980: 164). 이를 국어의 다른 모음과 비교하여 보면 /·/는 /ㅏ/, /ㅓ/를 나타내는 데에 이용한 宋代音과 겹치는 양상을 보여 /ㅏ/ > /·/ > /ㅓ/순으로 開口度의 차이를 보인다(박창원 2000). 이와 같은 《鷄林類事》에서의 /·/의 대응 양상은 吳音 및 漢音의 대응 양상과 비교할 때 /·/의 모음체계상의 위치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朝鮮館譯語》에서의 /·/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는 /ə/, /wə/, /a/, /ja/, /jɨ/, /wo/, /u/, /aj/에 대응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數的으로는 /ə/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많고 /a/로 대응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wo/, /u/, /aj/의 대응은 少數이다(權仁瀚 1998: 309-314).³³⁾ /jɨ/로 대응하는 것은 「思, 自, 世, 以」들인데 이 중 「思, 自」는 齒頭音으로 《鷄林類事》의 대응 양상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대응 양상은 /·/가 中舌母音임을 보여 준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김방한(1964)에서는 /·/를 /ㅓ/의 아래에 있는 中舌母音으로 설정하였으나 權仁瀚(1998: 314)에서는 체계상 中舌母音에 네 개의 모음이 놓이는 문제가 생기고, /·/가 13세기 蒙古語 借用語에서 /o/와 대응함을 근거로 /·/를 後舌 平脣 低母音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분명 이 지적대로 中舌母音에 네 개의 모음이 놓이는 것은 체계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日本漢字音, 《鷄林類事》, 《朝鮮館譯語》의 대응 양상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의 中舌母音的인 특징을 무시하기는 어렵다.³⁴⁾ 또

33) 이들 15세기 漢語의 韻에 대해서는 權仁瀚(1998: 50-57)에서 재구한 체계에 따라서 정리하여 보면 /ə/(車遮韻 開口), /wə/(車遮韻 合口), /a/(家麻韻 開口), /ja/(家麻韻 齊齒), /jɨ/(支思韻 齊齒, 齊微韻 齊齒), /wo/(歌戈韻 合口), /u/(魚模韻 開口), /aj/(齊微韻 開口)이다.

34) 또한 姜信沆(1978)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에서도 /·/는 中舌的인 /ə/ 모음을 지닌 字音에 대응되고 있다.

한 이런 日本漢字音 및 漢語와의 대응 양상은 母音推移에 관해서는 그 어떤 특징도 보여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 中舌母音의인 특색에 기초하여 母音體系에 관해서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4.4. 日本의 近代國語 轉寫 資料와의 비교

앞에서 日本의 古代國語 반영 자료에 /·/가 ㄱ列 乙類에 대응하는 특징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런 양상이 近代國語를 轉寫한 日本 資料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것은 日本語에 ㄱ列, ㄷ列, ㄱ列에서의 甲乙의 구별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는 母音體系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 通時的인 양상을 살피는 데에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들에서 /·/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ㄱ列에 대응하는 것은 18세기 자료인 《和漢三才圖會》(1713) 등의 ‘하늘(天) : 波乃留(はのる)’, ‘말(馬) : 毛留(もる)’ 등의 전사 예에서도 나타난다(小倉進平 1924 참고). 그런데 다른 국어 전사 자료에서는 /·/가 ㄱ列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ㄷ列과 ㄴ列로 대응하는 예들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全一道人》, 《物名》, 《交隣須知》이다.³⁵⁾ 이들 문헌은 근대국어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에 관해서는 비어두에서는 ㄴ列로, 어두에서는 ㄷ列로 전사될 것이 기대되나 실제 전사된 양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않다.

실제 양상을 보면 어두 및 한자어에서는 ㄷ列과 ㄱ列로 대응하며, 비어두에서는 ㄱ列, ㄷ列, ㄴ列로 대응하는데 그 양상은 문헌에 따라서 편

35) 《全一道人》은 18세기 초의 서울 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物名》은 시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려우나 《全一道人》보다는 후대적인 특색을 보여 주며 430여 개의 국어 어휘와 문장이 片假名으로 기록되어 있다. 《交隣須知》는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조선어 학습서로 여기에 일부 문장에 片假名으로 音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진남택 2004: 91-92).

차가 있다. 이들을 표로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全一道人》, 《物名》, 《交隣須知》의 /・/의 轉寫 樣相³⁶⁾

출현 환경	문헌명	전사 양상
어두 및 한자어	全一道人	オ(ㄴ, ㄹ, ㅁ, ㅂ, ㅅ 아래) > ア(ㄱ, ㄷ, ㅈ, ㅊ 아래)
	物名	ア
	交隣須知	ア > ウ(불그니)
비어두	全一道人	オ > 우 > ア
	物名	オ > 아 > 우
	交隣須知	オ > 아

이들 자료로부터 우리는 語頭 및 漢字語에서 /・/는 변화 이전의 단계를 반영한 것에서는 ㄱ列로 대응하고 있고 변화 이후의 단계를 반영한 것에서는 ア列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物名》에는 /・/>/ㅈ/의 양상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非語頭에서는 ㄱ列 > ア列 > 우列의 순서로 대응하는 음성적 실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非語頭에서의 /・/가 이 시기에도 아직 변화가 완료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단계임을 보여 주며 다양한 음성적 실현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우列로 대응하는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선행 자음으로 齒音과 舌音 즉 [+舌頂性]을 지닌 것들에서만 그 양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는 [+舌頂性] 자음 아래에서는 우列에 대응할 정도의 음성적 실현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中子音 아래에서 /・/>/ㄹ/의 변화가 활발했던 것과 관련되는 전사 양상으로 이해된다.

36) 세부적인 대응 양상은 진남택(2004)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4> 《全一道人》과 《物名》에서 우레로 대응하는 非語頭の /・/

문헌명	전사 예
《全一道人》	아즈비:adubi, 쓸헛거눌:kuruiyatukonuru, 마줄식:maturuso'i, 못 춤내: motutumuna'i, 브르지지니:hurutitini, 비룰:hairuru, 낫그르 식 :notukurusu'i, 흐르논:hurunoN, 니르러더니:nirurotutoni, 기르 기예: kiruki'e, 바눌로:hanururo, 거스리고:kosuriko, 다스리 던:tasuritoN, 벼술: hesuru, 흐락기에:hurukiwe, 구름:kurumu, 아 춤의:atutumui, 막춤: matumu, 막춘: motutuN
《物名》	가슴:ka'asumu, 다스마:tasuma

이와 같은 非語頭の /・/에 대한 전사 양상은 한영균(2002), 김주필(2004가, 2004나)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 > /-/의 변화가 16세기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을 여실히 보여 주며, 변화의 방향도 /・/ > /-/로만 나타난 것도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즉 이 변화의 점진적인 전개와 문헌과 계층에 따른 편차, 선행 자음의 종류에 따른 차이 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 일본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의 음성적인 특성은 앞서 살핀 여러 대응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특성과 거의 일치한다. 즉 /・/는 음성적으로는 ㄷ列에 가장 가깝고 그 다음으로는 ㄱ列에 가까웠던 소리였음을 보인다는 점이다.

5. 결론: 日本漢字音과의 대응 양상과 古代國語, 漢語, 古代國語를 反映한 日本 자료와의 비교

이 글은 /・/를 모음으로 지니는 韓國漢字音が 日本漢字音과 대응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이 음소의 음성적 특성을 밝히고 母音圖 내에서의 위치를 밝혀봄으로써 국어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和, 母音推移의 문제를 논의할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韓國漢字音에서 핵모음으로 /・/를 지니는 것들의 日本漢字音에서의

실현 양상을 보면 吳音과 漢音 모두에서 ㄱ列, ㄷ列, ㄸ列, ㄱ列로 핵모음이 나타나, /·/는 이들 네 개의 모음에 모두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써 짐작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는 前後舌, 高低 가운데 어느 한쪽에 치우친 모음은 아니고, 위 일본어 모음에 모두 대응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數的으로 볼 때 吳音이든 漢音이든 ㄱ列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ㄱ列에 가까운 모음이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어, 다소 低母音의 특색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특징은 중국 字音과의 대응에서 관찰되는 /·/의 中舌의 특성(姜信沆 1978)과도 맥이 닿아 있다.

/·/는 圓脣性 有無에서 /ㄴ/와 대립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나란하게 /ㅡ/도 /ㄷ/와 대립한다. 蟹攝과 梗攝의 글자 가운데에서 脣音 聲母 아래에서 /·/('拜빅', '盲땡', '烹땡', '白빅' 등)가 출현하는 것들은 같은 韻에 속하는 非脣音字에서는 /ㄴ/('愧괴', '觥땡', '橫횡', '號괴' 등)로 대응하는 것들이 있고, 曾攝 登韻의 脣音字에서는 핵모음이 /ㅡ/('朋땡', '墨땡', '北빅' 등)인 반면에 그 이외의 聲母字에서는 /ㄷ/('薨땡', '國국' 등)로 대응하는 양상이 이들 모음이 圓脣性 유무로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訓民正音에서 [口臈]의 有無로 /ㄴ/·/·/, /ㄷ/·/ㅡ/가 대립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비교 결과가 실제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古代國語 자료, 日本의 古代國語 반영 자료, 漢語, 日本의 近代國語 轉寫 자료에 나타난 /·/의 특성을 살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鄉歌에서의 /·/는 /-ə/, /-a/, /-ie/와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가 中舌母音에 해당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세부적인 대응 양상을 고려하면 中舌母音보다는 다소 낮은 곳에서 실현되었던 소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日本의 古代國語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의 양상은 ㄱ列 乙類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낸다. 古代日本語의 母音體系와 ㄱ列 乙類

는 中舌中母音에 가까운 소리임을 고려하면 /·/는 中舌中母音의 특색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3) 漢語와의 대응 양상을 볼 때 /·/는 中舌母音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a/ 및 /ə/와 대응하는 특징을 가장 강하게 보인다. 이런 양상은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인데, 《鷄林類事》에서는 /a/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많은 반면에, 《朝鮮館譯語》에서는 /ə/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漢語에 대응하는 /·/는 中舌母音이되 中母音보다는 다소 낮은 곳에서 실현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4) 近代國語時期的 音韻을 반영한 《全一道人》, 《物名》, 《交隣須知》와의 비교 결과 語頭 및 漢字語에서는 ア列과 オ列에 대응하는 것이 많고 非語頭에서는 オ列과 ア列에 대응하는 것이 많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는 /·/가 中舌中低母音의 특색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日本漢字音과 비교하여 본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결과로써 /·/는 古代國語에서부터 近代國語에 이르기까지 국어內的으로나 外國語와의 비교에서나 中舌母音의 특색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음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를 圓脣母音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를 後舌母音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대개의 대응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가 中舌中低母音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과 [舌縮]을 축으로 한 /ɿ:/, /ɨ:/, /ɯ:/, /ɤ:/, /ɐ:/, /ɐ:/, /ɐ:/의 체계적 대립을 고려하면 그 音價를 /ə/로 생각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로써 판단하건대 /·/에는 母音推移와 관련된 양상은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日本漢字音과의 비교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日本漢字音의 자료가 지니고 있는 성격상 漢語와의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만큼은 직접적으로 이용하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나 /·/와의 대응에서 일관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의 母音體系上の 위치와 母音推移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姜信沆(1978), 中國字音과의 對音으로 본 國語母音體系, 《국어학》 7, 국어학회, 1-21.
- 姜信沆(1980), 《鷄林類事 高麗方言 研究》, 成均館大 出版部.
- 權仁瀚(1997), 한자음의 변화, 《국어사 연구》, 태학사, 283-344.
- 權仁瀚(1998), 《朝鮮館譯語의 音韻論的 研究》, 태학사.
- 권인한(2003), 고대 한국한자음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제28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19-26.
- 權仁瀚(2005), 《中世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 권인한(2006), 중세국어 한자음,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57-94.
- 權仁瀚(2008가), 新羅國號 異表記와 古代韓國語 音韻現象의 展開, 《口訣研究》 20, 口訣學會, 179-211.
- 權仁瀚(2008나), 『三國史記』, 『三國遺事』 자료 연구의 방법과 실재, 《한국문화》 4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53-273.
- 권인한(2008다), 咸安 城山山城 木簡 속의 고유명사 표기에 대하여, 《사림》 31, 수선사학회, 39-62.
- 김무림(2006),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1)-반영 양상의 종합-,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2006, 89-132.
- 김방한(1964), 국어모음체계의 변동에 관한 고찰-중세국어모음체계의 재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도, 《동아문화》 2호,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9-80.
- 金完鎭(1963), 국어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3, 진단학회, 63-95.
- 金完鎭(1963), 국어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진단학회, 63-99.
- 金完鎭(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서울대.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 출판부.
- 김주원(1992),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國語學》 22, 國語學會, 33-56.
- 김주필(2003), 후기 중세국어의 음운현상과 모음체계, 《語文研究》 122, 韓國語文

教育研究會, 5-30.

김주필(2004가), 18세기 중·후기 王室 資料의 '아래아' 變化, 《語文研究》 122, 韓國語文教育研究會, 41-68.

김주필(2004나), 영조 어계류 한글 필사본의 표기와 음운현상, 《장서각》 11, 한국학중앙연구원, 27-60.

김주필(2007), 《도야기문(朝野記聞)》의 모음 관련 음운현상과 그 통시적 특성, 《어문학논총》 26,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73-88.

朴炳采(1971), 《고대국어의 연구 - 음운편》, 고려대 출판부.

박창원(1986), 국어 모음체계에 대한 한 가설, 《국어국문학》 95, 국어국문학회, 313-343.

박창원(2000), 계림읍사 <고려방언>의 모음체계(1)-'ㄹ'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6, 구결학회, 173-199.

宋 敏(1986), 《前期 近代國語 音韻論 研究》, 탑출판사.

李基文(1972), 《국어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李基文(1981), 千字文 研究(1), 《韓國文化》 2, 서울대 규장각 한국문화연구소, 1-17.

李方桂(1971), 《上古音 研究》, 臺北: 清華學報.

李 榮(1972), 《切韻音系》, 北京: 中國科學院.

李敦柱(1979), 訓蒙字會 漢字音 研究, 전남대 박사논문.

李敦柱(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탑출판사.

李敦柱(2003), 《韓中漢字音研究》, 태학사.

李準煥(2011), 鄉札 表記字 漢字音 研究의 回顧와 展望, 《口訣研究》 26, 口訣學會, 5-54.

정연찬(1999), 《개정 한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진남택(2004), 일본자료를 통해 본 ㅅ의 변천 과정, 《국어학》 44, 국어학회, 89-107.

최남희(1999), 《고대국어 표기 한자음 연구》, 박이정.

최남희(2006), 고대국어 한자음-고대국어 홀소리 「ㄹ(e)」의 존재에 대하여, 《국어사와 한자음》, 박이정, 11-55.

韓炘濤(2009), 中古音 三等韻의 前舌母音化, 成均館大 碩士論文.

한영균(2002), 모음조화의 붕괴와 모음체계 재정립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11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3-55.

허 웅(1965), 《국어음운학》, 정음사.

- 羅常培(1933), 《唐五代西北方音》, 上海: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 董同龢(1972), 《漢語音韻學》, 臺北: 文史哲出版社.(한국어 역: 공재석(1975), 《漢語音韻學》, 범학도서.)
- 陸志韋(1971), 《古今說略》, 臺北: 學生書局
- 王 力(1979), 《漢語音韻》, 香港: 中華書局 香港印刷廠
- 王 力(1985),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한국어 역: 權宅龍(1997), 《중국어 음운사》, 도서출판 대일).
- 李珍華·周長楫(1999),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 丁邦新(Ting, Pang-hsin)(1975), Chinese Phonology of Wei-Chin period: Reconstruction of the finals as reflected in poetry. Taipei: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special publications No. 65.
- 周法高(1973), 《漢字古今音集》,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 周法高(1984), 《中國音韻學論文集》,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 高田時雄(1998), 《敦煌資料による中國語史の研究-9・10世紀河西方言》, 東京: 創文社.
- 大野晋(1974), 《日本語をさかのぼる》, 東京: 岩波書店.
- 大野透(1962), 《萬葉假名の研究》, 東京: 明治書院.
- 藤井茂利(1996), 《古代日本語の表記法研究-東アジアに於ける漢字の使用法比較-》, 東京: 近代文藝社(한국어 역: 崔光準(2001), 《고대 일본어의 표기법 연구》, 제이앤씨.).
- 藤堂明保(1985), 《中國語音韻論》, 東京: 江南書院
- 賴惟勤(1957), 《中國音韻論集》, 東京: 汲古書院.
- 馬淵和夫(1957), 古事記のシ・オ・ホの仮名, 《國語學》 31, 國語學會.
- 馬淵和夫(1971), 《國語音韻論》, 東京: 笠間書店.
- 服部四郎(1976), 上代日本語の母音体系と母音調和, 《言語》 5-6, 2-14.
- 福田良輔(1955), 古事記のホの仮名について, 《九州大學文學部40周年記念論文集》, 九州大學.
- 肥爪周二(1995), 悉曇學書ニ見られるインド諸方言について-「吳音」, 「漢音」を理解するために, 《築島裕博士古稀記念國語學論集》, 汲古書院.
- 肥爪周二(2007), 書評: 馬淵和夫著 悉曇章の研究, 《日本語の研究》 3-3, 日本語學會, 66-71.
- 三根谷徹(1972), 《越南漢字音の研究》, 東京: 東洋文庫.
- 三根谷徹(1993), 《中古漢音と越南漢字音》, 東京: 汲古書院.
- 森博達(1991), 《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 東京: 大修館書店.

- 沼本克明(1986), 《日本漢字音の歴史》, 東京: 東京堂.
- 小倉進平(1924), 《南部古代韓國의 方言》, 朝鮮史學會.
- 松本克己(1995), 《古代日本語母音論-上代特殊仮名遣いの再解釋》, 東京: ひつじ書房.
- 柴田武・北村甫・金田一春彦編(1980), 《音韻》, 東京: 大修館書店.
- 有坂秀世(1934), 古代日本語に於ける音節結合の法則, 《國語と國文學》 11, 東京大學 國語國文學會.
- 有坂秀世(1957), 朝鮮漢字音について(재수록: 《國語音韻史の研究》, 東京: 三省堂. 303-326).
- 伊藤智ゆき(2002), 《朝鮮漢字音の研究》, 東京大學 博士論文.
- 平山久雄(1967), 中古漢語の音韻, 《言語-中國文化叢書1》, 東京: 大修館書店, 112-166.
- 河野六郎(1979), 日本語と朝鮮語の二三の類似, 《河野六郎著作集1》, 東京: 平凡社, 557-562.
- 河野六郎(1979), 古代の日本語と朝鮮語, 《河野六郎著作集1》, 東京: 平凡社, 563-568.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 天理時報社.
- Karlgren(1954),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Stockholm, Bulletin No. 26.

[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전화: 010-2654-5785
E-mail: yijunhwan@naver.com
투고 일자: 2011.6.11
심사 일자: 2011.7.20
게재 확정 일자: 2011.7.25